

소득 계층간 양극화 5년째 심화

통계청 발표 '2007년 가계수지 동향'

가구당 월평균 소득 322만원 5% 상승

전국가구의 소득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득의 계층간 양극화나 소득불평등 정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22만4천800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 능소득도 280만5천600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구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은 지난해 7.66으로 전년의 7.64에 이어 또 다시 최고기록을 경신, 소득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가구의 계층별 소득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가 5.3% 증가한 반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은 5.6% 가 증가, 5분위 배율을 더 높였다. 2분위와 3분위, 4분위 계층은 각각 5.0%, 5.0%, 4.3%가 증가했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

한 것을 의미하는 지니계수 역시 0.352로 전년보다 0.001 상승,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가구의 소득 5분위배율은 2003년 7.23, 2004년 7.35, 2005년 7.56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째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도 2003년 0.341, 2004년 0.344, 2005년 0.348 등으로 2003년 통계작성 이래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도시근로자구만 놓고 보았을 때도 2007년 연간 월평균 소득은 367만5천400원으로 전년대비 6.7%가 늘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월평균 거처 분소득 역시 318만3천100원으로 전년 대비 6.9%가 증가했다.

그러나 1분위 계층이 6.7% 소득증가를 기록한 반면 5분위 계층은 8.0% 가 증가, 소득5분위 배율은 5.44배가

되어 전년보다 0.06포인트나 높아졌다.

지니계수 역시 전년보다 0.03포인트가 상승한 0.313으로 소득불평등이 한층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가구 기준으로 물가인상을 감안한 월평균 실질소득 상승률은 2.5%였다.

2007년 연간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21만1천600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세금납부나 타구구 이전 등이 포함되는 비소비지출은 41만9천300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1인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30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으며 월평균 소비지출은 85만6천200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1인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22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14.5%가 늘었다.



이연하/연합뉴스

한국기자협회

연합뉴스

주가 모처럼 급반등

미국發 훈풍에 65P↑… 1700선 바짝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급반등하며 1,700선에 바짝 다가섰다.

1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에 비해 65.67포인트(4.02%) 급등한 1,697.45, 코스닥지수도 13.64포인트(2.15%) 상승한 649.53을 나타냈다.

이날 코스피지수의 상승률은 작년 11월26일 4.65%(82.45포인트) 급등한 이후 최대이며 상승폭으로 사상 4번째로 커졌다.

유가증권시장(853조2천200억원)과 코스닥시장(93조7천238억원)의 시가총액은 946조9천430억원으로 전날에 비해 34조4천407억원 늘었다.

전날(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1월 소매판매는 0.3% 증가,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심리가 되살아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아시아 주요 증시도 동반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4.27%)가 근 6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만 가권지수(4.17%)가 급등 마감했으며 오후 3시28분 현재(한국시간)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07%)와 홍콩 항셍지수(3.44%), 싱가포르 ST지수(3.14%) 등도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1월 생산자물가 5.9% 급등

2004년 이후 최고치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작년 1월에 비해 5.9% 상승해 2004년 11월 6.8% 오른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4%, 11월 4.4%, 12월 5.1% 등으로 오름 폭이 커지고 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8%를 나타내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산자물가가 급등한 것은 농림수산품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림수산물 가격은 설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늘어난데다 출하를 조절하면서 전달보다 2.9% 올랐다. 특히 팔기·배·감·사과 등 과실류 가격은 14.6%나 뛰었다. 공산품 가격도 달러화 약세와 중



국의 수요증가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담배, 화학제품, 금속 1차 제품,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0.8% 올랐다. 건축설계 등 전문 직종의 노임단가가 상승하면서 서비스 가격도 0.6% 상승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CD금리 연 5.31% … 5개월만에 최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세 … 이자부담 덜듯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가 되는 일정수익률(CD)의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5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저 5%대로 내려앉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부담도 덜 전망이다.

14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날 91일 물 CD 금리는 연 5.31%로 전 영업일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CD 금리가 1월22일 연 5.86%로 기록한 후 14영업일 연속으로 하락하며 작년 9월5일(연 5.3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CD 금리는 지난해 11월12일 연 5.36%에서 계속 상승, 올해 1월10일 연 5.

에너지·디자인 등 첨단산업 총망라

새정부 ‘신성장동력 산업’ 6월 선정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이 이르면 6월 중에 선정된다. 또 새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초점을 기존의 연구·개발(R&D) 중심에서 기업활동의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따라서 CD금리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국민은행은 이번 주보다 0.1%포인트 내린 연 5.97~7.57%를 다음주부터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15일 기준으로 6.23~7.73%, 신한은행은 6.33~7.73%, 하나은행은 6.61~7.31%를 각각 적용한다.

CD 금리는 지난해 11월12일 연 5.36%에서 계속 상승, 올해 1월10일 연 5.

예비후보 선정과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 신성장동력산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인수위가 예시로 제시한 산업은 ▲ 에너지산업 ▲컨설팅·금형 등 사업 서비스산업 ▲하이브리드차·차세대 반도체·크루즈선 ▲부품·소재 산업

▲문화콘텐츠 ▲디자인·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T·BT·NT·RT(정보기술·생명 공학·나노기술·관계기술) 등 첨단산업 등이다.

연합뉴스

기업 68% “새정부 출범 투자 확대에 영향”

국내기업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새 정부 출범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투자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대기업 155개, 중소기업 357개 등 전국

의 제조업체 51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새 정부의 출범이 경제상장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68.1%)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8.1%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이 경제상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기업은 2.7%에 그쳤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29.2%를 차지했다.

새 정부의 정책이 투자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늘 것이다’고 밝힌 기업이 67.8%, ‘예상과 비슷할 것이다’고 응답한 기업이 29.5%였으며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새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대기업, 수도권 규제 등 규제의 완화’를 꼽은 기업이 5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인세 등 세금 인하(26.9%)’와 ‘노동 유연성 제고(18.8%)’가 지적됐다.

연합뉴스

한국, 쿠르드서 대형 유전 개발권 확보

10억~20억 배럴 규모 … SOC 건설 참여도

우리나라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지역에서 기존의 바자안 탐사광구 외에 추가 광구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광구 확보는 건설업체 컨소시엄이 쿠르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도 참여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로 이뤄졌다.

1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 컨소시엄과 13일 방한한 쿠르드 정부 대표단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인프라 건설과 유전개발을 연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함께 일합니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기일	연락처
㈜하인코리아	정규직 사원/직원구인/창업자/생산관리	초대졸/경력무관	02/17 061-330-4523		
서암기계공업㈜	[기술연구소/단순노무직]/생산관리/2008년 사원	고졸/경력무관	02/17 062-960-5012		
LG전자(동광주서비스센터)	인테리어스 케어 사원(내방고객 인내 및 상담)	고졸/경력무관	02/18 062-512-6212		
남영건설㈜	기획/개발/SOC/운영/공사관리/총무인사/토목/건축</				